김우진·최미선, 광주 2022 양궁월드컵 2관왕 '명중'

22일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2022현대양궁월드컵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김우진이 7-1로 이우석을 이긴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광주여자대학교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2022광주현대양궁월드컵 리커브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승리한 최미선이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리커브 양궁 대표팀 남녀 단체전 금메달 독차지
개인전도 적수 없어 … 한국 선수 남녀 1·2위 휩쓸어

김우진(청주시청)과 최미선(순천시청)이 광주 2022 양궁월드컵에서 나란히 2관왕에 올랐다.

김우진은 22일 광주여대 특설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리커브 개인전 결승에서 이우석(코오롱)을 세트 스코어 7-1로 꺾고 단체전에 이어 두번째 금메달을 차지했다.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도 최미선이 팀 동료 이가현(대전시체육회)을 6-2로 꺾고 2관왕에 등극했다.

이우석은 준결승전에서 양궁월드컵 1차대회 개인전 우승자 미구엘 알바리노 가르시아(스페인)를 상대로 한수 위 기량을 선보이며 7-3으로 승리했다. 김우진도 준결승전에서 릭 반데르벤(네덜란드)를 6-2로 꺾고 결승에 진출,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금메달을 다퉜다.

동메달은 미구엘 알바리노 가르시아가 차지했다.

여자부 준결승전은 한국과 대만의 맞대결로 펼쳐졌다.

최미선이 궈 즈잉을 6-0으로 완파했고, 이가현도 치우 이칭을 6-2로 꺾고 결승 맞대결을 펼쳤다.

치우 이칭은 3,4위 결정전에서 6-2로 승리,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 리커브 양궁 대표팀은 이날 오전 남녀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독차지했다.

김제덕(경북일고)·김우진·이우석이 팀을 이룬 남자 대표팀은 단체전 결승에서 이탈리아를 6-0으로 완파했다.

동메달은 3,4위 결정전에서 프랑스를 꺾은 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최미선·안산·이가현이 호흡을 맞춘 여자대표팀도 독일을 5-1로 꺾고 동반우승을 완성했다.

인도가 3,4위 결정전에서 대만을 제압하며 동메달을 따냈다.

리커브 대표팀은 금메달 5개 가운데 혼성전을 제외한 4개의 금메달을 합작했다.

지난 21일 일정을 마친 컴파운드 양궁에서는 김윤희(현대모비스)가 여자 개인전과 여자 단체전 2관왕을 차지했다.

김윤희는 오유현(전북도청), 송윤수(현대모비스)와 팀을 이룬 단체전 결승에서 에스토니아를 232-228로 제압했다.

개인전 결승에서도 안드레아 무뇨스(스페인)를 144-140로 따돌리고 2관왕에 올랐다.

리커브 대표팀은 대회 초반 따낸 남자 단체전 동메달까지, 총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은 이날 세계양궁연맹(WA)에서 선정한 2021시즌 최고 선수상, 2021 시즌 여자 리커브 부문 최고의 선수상을 받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연타석 홈런 이창진 "짜릿하다"

KIA, NC 시즌 6차전 8-6승리
이의리 5이닝 1실점 시즌 2승

"처음 쳐봤는데 짜릿하다. 너무 좋다"며 '호랑이 군단'의 승리를 부른 연타석 홈런 주인공 이창진이 웃었다.

KIA 타이거즈가 2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8-6승리를 거뒀다.

7번 타자 겸 좌익수로 나온 이창진이 1회 첫타석부터 홈런포를 가동하는 등 연타석 홈런과 함께 3안타 4타점 활약을 하며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1회부터 KIA의 홈런포가 가동됐다.

류지혁이 볼넷으로 출루한 뒤 김선빈의 몸에 맞는 볼로 무사 1·2루가 됐다. 나성범이 5구 승부 끝에 송명기의 136㎞짜리 포크볼을 걷어 올려 우측 담장을 넘겼다.

3-1로 앞선 2회말에는 이창진이 그라운드를 돌았다.

이창진은 송명기의 초구 145㎞ 직구로 좌중간을 넘기면서 시즌 2호 홈런을 장식했다.

이창진의 홈런은 다음 타석에서도 이어졌다.

1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우측 펜스를 때리는 2루타로 출루했고, 최형우가 볼넷을 골라냈다. 그리고 타석에 선 이창진이 7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이번에는 130㎞ 슬라이더를 좌중간 담장 밖으로 날려 한 번에 3타점을 만들었다. 시즌 4번째, 통산 1123번째 그리고 개인 첫 번째 연타석 홈런이었다.

이창진은 5회 세 번째 타석에서는 좌전안타로 3안타 행진을 했고, 4번째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내면서 4타석에서 모두 출루에 성공했다.

선발 이의리는 제구 난조에도 득점 지원을 받으면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이의리는 1회 2사에서 만난 박건우에게 초구 146㎞ 직구를 던졌고, 중앙 담장 넘는 선제 솔로포를 허용했다.

이후 위기는 있었지만 실점은 없었다.

2회 이명기에게 중견수 키 넘은 2루타 뒤 김응민과 서호철을 각각 좌익수 플아리와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3회에는 볼넷 3개로 2사 만루 위기에도 몰렸지만 마티니의 타구가 2루수에게 잡히면서 투아웃.

이창진

그리고 스타트를 끊었던 1루 주자 양의지까지 동시에 잡아내면서 이닝을 마무리했다.

이의리는 4회에도 선두타자 노진혁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유격수 박찬호의 좋은 수비로 추가 진루는 허용하지 않는 등 5이닝 4피안타(1피홈런) 3볼넷 5탈삼진 1실점으로 등판을 끝냈다.

8-2로 앞선 9회 팀의 5번째 투수로 나온 유승철이 양의지에게 투런포를 맞는 등 4실점은 했지만, 2점 차 리드 상황에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이의리의 시즌 2승이 기록됐다.

승리의 주역이 된 이창진은 "타석에서 집중해서 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고 있는 것 같다.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었다. 운도 많이 따랐다"며 "크게 쳐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정확히 치자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게 좋게 작용한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개막 엔트리에서 탈락하면서 시즌 출발은 늦었지만 최근 가장 페이스가 좋은 선수 중 한 명이 이창진이다.

이창진은 최근 5경기에서 15타수 8안타, 0.533의 타율을 장식하고 있다. 이창진은 "(시즌 초반) 생각이 많았지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뒤에서 준비를 잘했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타격이라 그 부분에 신경 쓰고 있다. 타격 코치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기술면에서도 변화를 줬다. 타석에서 계속 나가면서 여유도 생기고 조금씩 투수와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생겨서 좋다. 무엇보다 팀이 승리해서 좋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경남과 2-2 … 10경기 연속 무패

광주FC가 선제골은 지키지 못했지만 10경기 연속 무패를 이었다.

광주는 22일 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경남FC와의 하나원큐 K리그2 2022 1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전반 6분 경남이 먼저 공세에 나섰다. 윌리안이 친정 광주를 상대로 위력적인 오른발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김경민이 이를 막아냈다.

전반 12분에는 헤이스가 광주의 공세를 알렸고, 21분에는 허율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세밀함이 떨어졌다. 그리고 전반 27분 광주가 위기를 맞았다. 역습 상황에서 윌리안이 페널티 지역까지 진입했고 김재봉이 혼신의 수비로 슈팅을 막았다. 위기 뒤 기회가 찾아왔다.

바로 이어진 공격에서 박한빈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리면서 경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통산 100경기 출장날 기록된 박한빈의 선제골이었다.

전반 42분 이으뜸이 왼쪽 측면에서 때린 공이 골키퍼에 막힌 뒤 경남의 공세가 전개됐다.

이준재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 맞고 흘렀고, 문전 경합 상황에서 티아고가 왼발로 공을 밀어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후반 8분에는 광주가 역전골도 허용했다.

코너킥 상황에서 뒤로 흐른 공을 오른쪽 측면에 있던 윌리안이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이정효 감독이 후반 13분, 앞선 안산전에서 시즌 첫 골을 기록한 하승운을 투입해 분위기를 바꿨다.

후반 17분 하승운의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지만 후반 19분 시즌 첫 도움을 장식했다.

헤이스가 하승운의 패스를 받아 왼발로 시원한 슈팅을 날리면서 2-2를 만들었다.

두 팀은 승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지만 추가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경기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광주는 리그 5연승은 이루지 못했지만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1위 질주를 이어갔다.

이정효 감독은 "최선을 다한 경기였고, 투혼과 헌신을 보여준 선수들에게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전하고 싶다. 전반전 끝나고 이기기 위해 해야할 것들, 전방압박과 헌신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 선수들에게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는 안산그리너스의 시즌 첫 승 '제물'이 됐다. 전남은 지난 2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안산과의 17라운드 홈경기에서 2-3 패를 기록했다.

전남이 전반 8분 만에 실점했다. 안산 두아르테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지만 김보섭이 공을 잡아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44분 전남이 동점골을 만들었다.

임찬울의 패스를 받은 전승민이 중거리 슈팅을 날리며 그대로 안산 골대를 갈랐다. 전승민의 K리그 데뷔골이었다.

하지만 승리는 안산의 몫이었다.

후반 9분 까뇨뚜에게 페널티킥골을 내준 전남이 후반 19분 강수일에게 세 번째 골을 허용했다.

전남은 후반 39분 이중민의 도움을 받은 플라나의 골로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승부를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경기가 2-3으로 끝났고, 앞서 7무 8패로 무승 부진을 이어갔던 안산은 적지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유로스포츠 선정 '시즌 최고 선수'

아시아 최초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도전하는 손흥민(30·토트넘·사진)이 올 시즌 유럽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손흥민은 유로스포츠가 20일(현지시간) 유럽축구 2021-2022시즌 종료를 앞두고 발표한 '시즌 최고의 선수'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올해의 팀, 올해의 순간, 시즌 최고·최악의 이적 등을 미리 뽑아 발표했다.

손흥민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 무함마드 살라(리버풀) 등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 유로스포츠는 "메시가 1년간 주춤한 사이 놀라운 일이 생겼다. '누가 최고인가'에 대한 질문에 20~30개의 정답이 생겼다"며 "우리의 답은 손흥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PL 득점 2위(21골)인 손흥민과 1위 살라(22골)의 상황을 비교했다. "손흥민은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은 유로스포츠가 뽑은 'EPL 올해의 팀'에도 왼쪽 윙어로 뽑혔다. /연합뉴스